

2006년 유우군 검정농가 순회교육 개최



2006년 유우군 검정농가 순회교육이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지난 11월 20일부터 28일에 걸쳐 검정농가와 개량관련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본회가 주최하고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농림부와 축산신문사가 후원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지역적으로 소외된 낙농가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개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2년부터 시작된 순회교육은 금년도에도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열렸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함께하는 낙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의 어려운 낙농현실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본회 조병대 회장은 인사말에서 검정농가 순회교육을 통하여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교류하고 검정농가 간에 친목도모를 하길 바란다고 말하고, 현재 낙농산업의 초미의 관심사는 한·미 FTA 등 지속적인 농산물시장 개방 압력과 국내적으로는 원유수급 조절 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와 낙농가 및 각 단체간 논의라며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검정농가의 산유량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고, 홀스타인품령회가 활성화 되는 것은 낙농가 여러분의 개량에 대한 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종축개량산유능력검정중앙회 조옥향 회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사양관리 등의 기술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화합과 함께하는 낙농으로 낙농가족 모두가 번영하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행사를 준비하였다고 밝혔다.

더불어 종축개량과 산학협력을 통한 과학적인

낙농산업으로 낙농가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전환기에 서 있는 낙농산업을 제대로 인식하고 낙농선진국에 대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낙농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함께하는 낙농만이 미래가 있다”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우리나라 낙농산업이 선진화되기 위해서는 개개의 목장이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하

유우군 능력검정사업 유공자 포상자내역(한국종축개량협회장상)

일정	지역별	대상자(소속)
11월 20일	영남지역	이동명(영주시청 축산계장)
11월 21일	호남지역	황성재(영암군청 축산주사)
11월 23일	강원 및 경기남부	강규희(횡성군청 유통위생과장)
11월 24일	강원 및 경기북부	유중근(파주시청 축산계장)
11월 27일	경기서부	김용주(평택시청 축산경영담당)
11월 28일	충청지역	곽용화(충북도청 축산과장)



경기 서부지역 우수회원 또나따목장 양의주, 김선용 부부



본회 이종헌 국장과 평택시청 축산지원사업소 김용주 축산경영담당

는 낙농, 하나가 되는 낙농을 했을 때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낙농의 영역을 넓히고, 위상을 높일 때 세계를 주도하는 낙농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단위 제도개편을 위한 정책마련과 한·미 FTA 중단, 낙농진흥회 농가 기준원유량 회복, 축사를 농업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개정, 학교유급식의 제도화, 지방세법 개정으로 축발기금의 안정적 확보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원영목장 류수일 대표(충남 아산시)는 우수목장 사례발표에서 현재 혈통과 선형심사 및 검정성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교배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체형위주 즉 생산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종모우를 이용하여 생애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실질적인 수익을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와 함께하는 친환경목장, 아름다운 목장을 가꾸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며, 아산시 관내 전체 낙농가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함께 발전하는 낙농을 위해 열심히 땀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낙농동향 및 미래지향적 낙농과제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 남인식 낙농팀장(농협중앙회)은 우리나라와 세계의 낙농현황의 비교를 통해 지난 10년간 유량 2천kg대, 유지율 0.2%증가되었으나 유단백 0.2%감소하였고, 체세포는 148천으로 개선되었으나 분만간격은 30.9일 지연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유질 개선은 개량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며, 정확한 검정기록을 통한 정액 선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낙농가는 생산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낙농 전반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하며 치즈 시장을 사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젖소 행동에 따른 질병 관리에 대해 열띤 강의를 실시한 이윤교 대표(주 유카스)는 “운동장에서 젖소들의 침흘림, 머리숙임, 등구부르기 등의 이상 행동과 사료섭취감소, 연별, 설사, 유량감소 등의 현상 관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추위 내 미생물과 혈액, 침 생산량, 간기능의 역할을 설명하고, 젖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화와 번식이라고 말했다.

낙농육우협회 오는 27일부터 전국 낙농순회강습회 개최 안내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오는 11월 27일(월)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9개 도시에서 전국 낙농순회강습회를 개최한다.

전국의 낙농육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금번 강습회는 올해부터 시작한 의무낙농자조금사업 추진동향 보고와 외부인사의 초청 강연, 낙농육우 산업 현안에 대한 간담회 등의 내용으로 실시된다.

특히, 대외무역 환경변화와 이에 대비한 우리 낙농육우 산업의 과제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초청 강연의 시간을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낙발대책 논의동향, 한·미 FTA 대응활동 등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통해 낙농육우산업 동향의 정보제공 및 현장 농가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전국 낙농순회강습회 개최일정은 아래와 같으며, 전국의 낙농육우농가와 관심있는 사람은 지역별 일정에 맞춰 참석하면 된다.

■ 지역별 일정

일 자	지 역	장 소
11.27(월)	강원 원주	농업기술센터
1.30(목)	충남 홍성	홍농연회관
12. 1(금)	전북 전주	기린원
12. 4(월)	경북 대구	영남대 국제관 그랜드홀
12. 7(목)	경남 함안	문화센터(공설운동장내)
12. 8(금)	전남 나주	농업기술원
12.11(월)	경기(남)이천	설봉호텔
12.12(화)	경기(북)포천	농업기술센터
12.14(목)	경남 양산	농업기술센터

■ 시간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10:30	· 방명	
10:30~11:00	· 개회식(내빈소개, 회장인사)	
11:00~11:30	· 자조금사업 동향 설명	자조금사무국
11:30~12:30	· 초청강연	외부강사
12:30~13:30	· 낙농육우 산업 현안 간담회	협회
13:30~	· 폐회(이후, 점심식사)	